

‘교통불편·인프라 부족’ 혁신도시 인구 유입 저조

나주 62.9%...10개 도시 중 8위 가족동반 이주율 39.5% 불과 도시와 인접성·기반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 2 핵심



10개 혁신도시 이주 통계 <자료:국토교통부·단위:%>

도시	인구달성률	가족동반 이주율	시청과 거리
부산	107	46.5	2~4km
울산	101.1	41.1	4km
전북	92.9	49.9	전주 9km·완주 13km
제주	89.5	47	2km
경북	78.5	29.4	8km
대구	78	37.4	10km
강원	69.7	29.3	7km
광주·전남	62.9	39.5	나주 9km·광주 18km
충북	56.5	18.8	13~16km
경남	54.1	34.1	5km
평균	72.1	37.2	

※인구달성률=주민등록인구 계획 대비 실적(2018년 기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인구 달성률이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시종2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기존 도시와 인접성과 기반시설이 취약함을 개선하는 등 신도시형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이 올해 초 발표한 '신도시형 혁신도시 유입가구의 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나주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 달성률은 2018년 기준 62.9%로 집계됐다.

이는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경남(54.1%), 충북(56.5%)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전국 평균은 72.1%이며, 부산이 107.3%로 가장 높고, 울산(101.1%), 전북(92.9%), 제주(89.5%), 경북(78.5), 대구(78%), 강원(69.7%) 순으로 높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나주 혁신도시 주민등록 계획인구는 4만9000명으로, 이 가운데 3만8199명이 이곳에서 주민등록을 마쳤다. 나주 혁신도시의 경계는 2014년 신설된 빛가람동 외에 금천면, 산포면도 포함됐다.

주민등록인구 3만명을 넘긴 나주 혁신 도시는 이전인원 7533명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이전인원 3만9593명 가운데 가장 큰 비중(19%)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유입인구가 직장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탓에 '1인 세대주'

나 '핵가족' 위주 이주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 동안 나주 혁신도시 순유입 인구는 2만8727명으로 집계됐다.

혁신도시 순이동 인구는 2012년 3명, 2013년 64명, 2014년 3857명, 2015년 8374명으로 급증했고 2016년에는 8332명으로 꺾이며 2017년 6213명, 2018년 1884명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측은 2016년부터 전입인구가 점차 감소한 데는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갈등과 자녀 교육 문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풀이했다.

나주 혁신도시 유입인구 절반 이상이 1인 세대주나 핵가족인 데는 직장 때문에 혁신도시로 오는 인구가 대다수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 동안(2014~2018년) 전체 순이동 가운데 1인 세대주 이주 평균 비율은 43.8%에 달한다. 1인 세대주 비율은

2016년 39.4%, 2017년 41.2%, 2018년 51.7%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혁신도시 대표 전입자의 이동 사유를 직업, 가족, 주택, 교육, 교통, 건강, 기타 등으로 나눠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직업' 사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동인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나주 혁신도시 이주인구 규모는 30대가 26.5%를 차지하며 가장 많다.

이어 40대 이동이 16.2%로 많았고, 미취학아동(15.3%), 20대(14.8%), 50대(9.1%), 초·중·고학생(7.7%), 60대 이상(5.3%), 중·고·고학생(5.1%)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빛가람동 인구만 분석한 결과, 연령별 인구 구성은 모(母)도시(광주시·나주시)와 큰 차이를 보였다.

빛가람동은 모도시 인구 대비 30대와 9세 이하 인구가 특히 많고, 20대·50대 인구는 적게 나타났다. 이는 30대와 9세 이

하 등을 주축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광주·전남의 고령화된 인구구조가 젊은 구조로 전환하는 효과를 낳았다.

나주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43.5점으로, 10개 혁신도시 평균(51.8점)을 크게 밑돌았다.

만족도가 낮은 부문은 의료서비스, 교통환경, 여가활동환경 등이 꼽혔다.

인구 146만에 달하는 거점 도시 광주는 혁신도시로부터 18km 떨어져 있고, 11만명이 사는 나주시 도심과도 9km 거리가 있다. 서울과 직선거리는 280km로, 강원·충북(각 90km), 대구(240km), 전북(190km)에 비해 열세를 보인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유선 연구원은 "나주 혁신도시 인구 달성률이 낮은 것은 직업 목적 외에 가족, 주택 목적 이주가 적기 때문"이라며 "나주, 광주와 교통 연계를 통해 부족한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주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KPS, 공기업 최초 비대면 감사제도 운영

한전KPS는 공기업 최초로 화상 방식의 감사제도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한전KPS는 올 하반기 감사 시스템을 '랜선(線) 오디트'(Audit)라 이름 붙이고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4월과 6월에는 국내 사업장에서 시범 실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체 종합 감사의 30% 비중을 비대면 방식으로 채운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예정된 종합 감사를 모두 화상감사로 전환한 바 있다. 한전KPS는 직원들이 자신신고나 적극적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는 면책해주는 등 현장 교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화상감사 업무에 기여할 계획이다.

문태룡 한전KPS 상임감사는 "공기업 최초로 도입한 화상감사 시스템인 '랜선 오디트'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전KPS는 화상감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및 전문자료를 활용한 감사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학연금,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 온라인 진행



사학연금 홍보 서포터즈 온라인 발대식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최근 '사학연금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비대면 발대식에는 원격 회의프로그램 '줌'(Zoom)이 활용됐다. 행사는 서포터즈 단원 소개와 공단 소개, 서포터즈 활동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8회차를 맞는 '사학연금 홍보 서포터즈'는 대학생 17명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처음으로 대학생 외 일반 국

민 서포터즈도 선발됐다. 이들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사학연금 제도 안내, 공단 소식 전달, 사회공헌 활동 등을 하게 된다.

주병현 이사장은 "다양한 연령층의 참신한 홍보제원을 반영한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이 기대된다"며 "서포터즈의 SNS 홍보활동을 통한 마케팅 효과로 공단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지역인재 대상 '에너지벨리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노후 시설물 점검으로 국민안전 지킨다

한전KDN, 9월28일~10월30일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재들을 대상으로 한 '2020 빛가람 에너지벨리 소프트웨어 작품 경진대회'가 오는 9월28일부터 10월30일까지 열린다.

한전KDN는 광주·전남 에너지벨리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사업의 하나로 '빛가람 에너지벨리 소프트웨어 작품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6회째인 이번 대회는 2015년 개최 이후 45개 팀의 지역인재가 참가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신입사원 5명이 이 경진대회 출신"이라며 "경진대회가 지역 소프트웨어 인재 발굴과 양질의 일자

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회에는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교(대학원생 포함)와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이 참가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그린뉴딜 등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작품을 5인 이내 또는 개인 단위로 출품하면 된다.

출품은 9월28일부터 10월30일까지 한전KDN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한전KDN은 출품작 중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24개 팀을 선발, 11월18일 한전KDN 나주 본사에서 팀별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작에 대한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어촌공사 무상점검 70건 시행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상반기 공공시설물 무상점검을 70여 건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시설물점검 119센터'를 운영하며 8월 현재 총 754개소 시설을 무상으로 점검했다.

올 상반기 무상점검 건수는 70여 건으로, 연말까지 연 평균 건수(100여 건)를 넘길 것으로 내다봤다.

무상점검 대상 시설에는 저수지, 방조제, 교량과 같은 기반시설 뿐 아니라, 학교, 공원, 마을 회관 등 공공시설물이 포함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자체 점검요청이 들어오면 전문 인력이 현장에 출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근에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노후 시설 위주 점검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노후 시설의 안전이 우려되면서, 기존 사회기반시설물 점검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 편의 증진시설까지 점검대상을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공사는 농어촌 지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협력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어촌공사, 물고기 다니는 길 '어도' 사진 공모전

10월8일까지 진행

한국농어촌공사는 물고기의 생태통로인 '어도' 사진 공모전을 오는 10월8일까지 진행한다

올해 3회째 치러지는 어도사진 공모전 주제는 '아름다운 어도와 어도를 이용하는 물고기'이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어도정보시스템'에서 응모할 수 있다. 1인당 3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출품작들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상(대상), 농어촌공사 사장상

(최우수상) 등 16점이 선발된다. 상금은 총 650만원이다.

사진 공모전과 함께 진행되는 '어도 정보 사냥대회'에 참가하면 추첨을 통해 50명에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물고기가 산란 및 먹이활동을 위해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든 어도는 전국 하천 5000여 곳에 있다"며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의 어도관리자와 일반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NAVER 백산광화문작명소

T) 02-747-0242 / 02-738-1938
M) 010-5639-4088 / 010-3785-1935

名작 1작 1작 名명

광화문父子작명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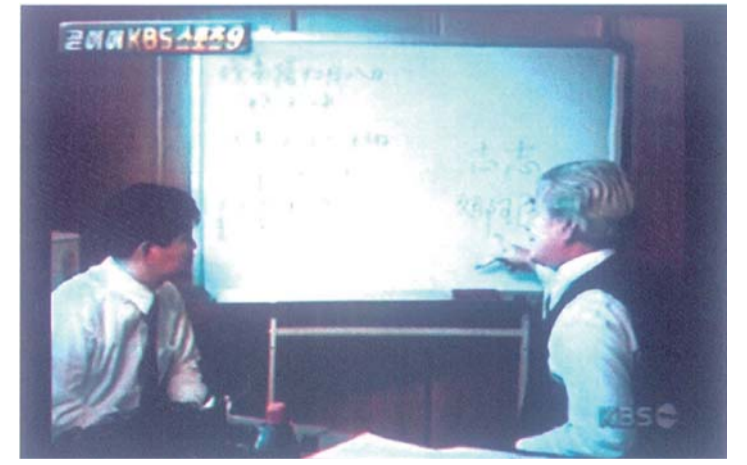
성스러운 탄생과 이름

세상은 좋은것도 많고 나쁜것도 많다. 이름도 좋은 이름 많고 나쁜 이름도 많다. 사람은 이름이 좋아야 평생 마음 먹은대로 하는일 마다 잘 되고 대복을 누린다. 나쁜 이름은 매사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는일 마다 실패한다. 일시적으로 성공했다 해도 수포로 돌아간다. 좋은 작명가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끝으로 이름 값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30만원이 기본이요. 많은 성의를 표시 하는 가정이 있고 형편에 따라 조금 저렴 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곧 생명입니다. 저의 부자는 정성으로 대명작의 이름을 작명하여 전국 어디에나 보내드립니다. 나쁜이름과 상호는 새이름 (new name)으로 바꾸시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작명가 白山 선생과 아들 서승재 박사父子가 정성으로 작명한 大名작의 이름으로 평생 마음 먹은대로 大福을 받으세요



작명가 白山 작명가 서승재 박사 (백산2세)



한국 최고의 작명가로 KBS TV 9시 뉴스 방영당시 白山 선생



외국인과 교포가 많이 찾는 白山 선생 (MBC TV 방영)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비대면 작명을 환영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74번지 광화문시대빌딩 715호 (서울정부종합청사와 외교부 중간 광화문시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